

## “배울 것 많은 박람회” 관람객 찬사

개막 첫 주말 6만명 관람... 흥행은 아직  
李대통령 “남해안 세계적인 명소될 것”



▶ 관련기사 2·3·4·5·7·8면

미래를 향한 문이 열렸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가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9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11일 전야제 겸 개막식을 열고 여수박람회의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개막 첫 주말과 휴일이었던 12~13일 이틀동안 관람객은 6만여명(당초 30만명 예상)에 그쳐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박람회장 내 해상무대 빅오(Big-O)에서 열린 전야제 겸 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과 세계박람회기구(BIE) 비센테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 국회의원, 기업 CEO 등 국내·외 24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막 선언에 앞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여수시민과 전남 도민,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박람회가 좋은 기회가 돼 남해안 일대가 세계에서 가장 알려진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연과 문명, 인류가 조화를 이루는 물, 바다, 연안을 놓고 박람회를 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며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주제를 갖고 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석 조직위원장도 환영사에서 “160년 박람회 역사상 가장 빛나는 박람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번 박람회가 21세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해양’에서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바다는 식량자원의 보고이며, 인

류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박람회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연안에 주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막식에 앞서 박람회장 해상무대 빅오(Big-O)에서는 다채로운 해상 퍼포먼스가 열렸고, 뱃고동 소리가 아름다운 선율을 실은 스카이다워와 이프오르간 연주도 곁들여졌다. 각종 퍼레이드와 오케스트라, 전통 공연, 케이팝(K-POP) 공연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축제의 장이 됐다.

축제는 박람회장과 바다에서 함께 펼쳐졌다. 식전 개막 행사가 열리는 동안 오펜도 인근 바다에서는 범선과 요트, 국내 전통선 등 선박들이 해상 퍼레이드를 펼쳤고 제트스키 시범이 곁들여졌다. 1만 발의 폭죽이 여수 밤하늘을 물들이며, 개막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어 12일 오전 8시부터는 관람객들의 첫 입장이 시작됐고, 9시에는 엑스포디지탈갤러리(EDG) 입구 광장에서 공식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개막식은 근악대 연주와 스카이다워 연주,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반면 첫 주말과 휴일, 관람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애초 이 기간 하루에 10만~15만명의 몰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개막 첫날인 12일 3만 5660명, 13일 2만3300명(오후 6시 현재)에 그쳤다.

이처럼 관람객 입장이 저조한 것은 가족단위 관람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방학과 휴가철이 아직은 멀었고, 개막전 열렸던 1~3차 예행연습에 여수·순천·광양 등지의 주민 18만여명이 이미 박람회장을 다녀갔기 때문으로 조직위는 보고 있다.

/여수=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kwangju.co.kr



환상의 개막식 세계인의 바다 축제,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이 열린 지난 11일 밤 여수 밤하늘에 화려한 축포가 터지면서 93일간의 대장정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 앞바다와 오펜도가 내다보이는 그림 같은 행사장에서 펼쳐진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산성 수돗물’ 대란

용연정수장 약품 과다투입 12시간 공급 차질... 시민 80만명 불편

광주시민 80여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정수용 약품이 과다 투입되는 바람에 12시간가량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단독주택 거주자 등 일부 시민들이 먹는 물 기준치를 넘어선 수돗물을 마시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관련기사 10면>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동구 용연정수장에서 응집제 저장탱크 누출액 방지벽 설치 공사를 하던 작업 근로자들이 약품 공급밸브(수동)를 잘못 조작했다. 이 사고로 정수과정에서 부유물질을 영키게 해당어리로 만드는 응집제(PAC)가 과다 투입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루 평균 4t

가량 투입하는 응집제가 이 사고로 10배가량 초과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산성(2pH)을 띠고 있는 응집제가 과다 투입되면서 pH(수소이온농도)가 먹는 물 기준치인 5.8~8.5를 크게 밑도는 5.2까지 떨어졌다. 수돗물이 강한 산성을 띠면서 “물이 끈적 거린다” “신맛이 난다”는 등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시 상수도본부는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주요 간선도로 등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물을 빼내는 드레인 작업을 통해 13일 오전 3시30분께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독주택 등 직결(直結)급수 지역을 중심으로 오

염된 물이 일부 공급됨으로써, 시가 지역방송에 수돗물 음용 자제를 당부하는 긴급 공지를 했으며,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밤늦게 생수 구입에 나서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용연정수장 계통의 수돗물은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일부 지역의 전체 수용가 140만명 가운데 65%인 80만명 가량이 공급받고 있으며 공급량은 1일 24만이다. 원수는 화순의 동북수원지에서 공급받고 있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은 시 상수도본부 관계자와 현장근로자 등을 불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DJ 일대기 뮤지컬 만든다

러 국립 필하모니와 목포시 공동제작 추진

목포시가 러시아 국립 필하모니와 함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 제작을 추진한다.

정중득 목포시장과 목포시립교향악단은 11~16일 러시아를 방문, 국립 필하모니아 및 차이코프스키협회와 뮤지컬 제작을 비롯한 문화예술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목포시향의 세계 무대 진출도 타진한다. 또 목포시가 조성 중인 노벨평화상기념관, 예술창작벨트 조성과 관련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벤치마킹한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행사태

당권파-비당권파 충돌 조준호 대표 등 입원

통합진보당은 지난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었으나 회의에 반대하는 당권파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폭력사태가 벌어지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관련기사 6면> 당권파와 당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9시50분께 “해산하라, 불법 중앙위원회”를 외치며 단상으로 달려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단상에 있던 심상정·유시민·조준호 공동대표가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특히 조준호 공동대표는 당권파 당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해 13일 병원에 입원했다.

당권파와 중앙위원과 당원들은 “국민참여당 출신 중앙위원 50여명이 회의를 앞두고 무더기로 교체됐다”며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중앙위원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당권파 측은 “어제 오후 2시로 중앙위 명단이 확정된 것이며 어떤 하자도 없다”며 “당권파의 주장

은 합의 정신을 파괴하고, 통합 주체의 자율적 결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당권파는 진상조사를 통해 총체적 부정과 부실이 입증됐으며 비례대표 총사퇴와 즉각적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권파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비례대표 거취를 결정하기 위한 당원 총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경희·유시민·심상정·조준호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했다. /박지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님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2012년 6월 30일 까지
- 클럽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 모집인원: 9명	하트 정회원 - 모집인원: 5명
▶입회금액: 3억 3,000만원	▶입회금액: 2억원
▶회원특전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생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일/1회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지정회원 1인: 그린피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365일 사용, 1일 1회)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일 1회)
휴먼 정회원 - 모집인원: 10명	해피 정회원 - 모집인원: 30명
▶입회금액: 1억 5,000만원	▶입회금액: 1억 1,000만원
▶회원특전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공통: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1인: 중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선택: C형, D형 중 선택(1)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90회 사용, 1일 1회)	- C형 무기명 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 할인(연 45회 사용, 1일 1회)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90회 사용, 1일 1회)	- D형 지정회원 1인: 중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중중 / 평일 회원 - 모집인원: 47명	
▶입회금액: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할인	

※ 계약시: 정회원인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한남시: 모든 특전  
※ VIP·하트·휴먼·해피 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 Fax 061)330-5009  
www.happinesscc.com